

# 챔필에 뜬 아기호랑이들 “타이거즈에 몸 바치겠다”



KIA 타이거즈의 2025 1라운드 지명 선수인 덕수고 투수 김태형(왼쪽) 등 11명의 신인이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입단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의 2025 루키들이 ‘새로운 안방’을 찾았다. 2025 신인드래프트에서 KIA의 호명을 받은 11명의 신인 선수가 24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최준영 대표이사, 심재학 단장 등 구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식을 가진 이들은 그라운드에서 올라 팬들에게 각오를 밝히는 시간도 가졌다. 덕수고를 거쳐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우완 김태형은 “스태미너가 좋아서 긴 이닝 끌고 가는 선수다. 아직 부족하지만 연습하면 선발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출신인 그는 챔피언스필드 건립 당시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바닥돌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은 타이거즈 어린이팬 출신이다. 김태형은 “가린이 출신이다. 양현종 선배님 뒤를 잇는 선수가 되고 싶다. 선배님한테 변화구 던지는

**2025 신인 선수 11명 입단식**  
**덕수고·광주일고 등 명문 출신 즐비**  
**“제2의 양현종·전상현 되겠다”**  
**“KIA 하면 떠오르는 이름 될 것”**

**선수들 각양각색 앞으로 각오 밝혀**  
**입단 계약 마무리...최고 연봉 3억**

법, 부상 없이 길게 선수 생활하는 법, 어떻게 하면 1군에서 살아남는지 등을 배우고 싶다”며 “프로는 아마추어와 다르게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더 좋아지고 성장할지 궁금하다”고 프로 생활을 앞둔 소감을 언급했다. 나주북초-화순중-전주고 출신인 2라운드 이호민은 “나의 오른팔은 이제 KIA 것”이라며 “제구 좋고 변화구 안정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2의 윤석민이 되고 싶다. 변화구 제구력, 던지고 싶은 것을 잘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또 전상현 선배님한테 모든 구종 배우고 구위를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3라운드 인천고 외야수 박재현은 “진짜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감 플레이를 예고했다. 4라운드 지명선수인 공주고 우완 양수호는 “타이거즈에 이 몸을 바치겠다. 타이거즈의 수호신이 되

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5라운드 부산고 우완 김정엽은 “호랑이 같은 무서운 투구를 보여주겠다”며 공격적인 피칭을 다짐했다. 6라운드 강릉영동대 ‘군필’ 우완인 최건희는 “정해영 선배를 좋아한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빨리 1군에 올라오겠다”고 프로 데뷔 순간을 그렸다. 7라운드 휘문고 우완 나연우는 “열심히 해서 양현종 선배 뒤를 잇겠다”고 양현종의 이름을 언급했고, 8라운드 경기상고 투수 임다은은 “전상현 선배님 자리 내가 뺏겠다”라고 당찬 소감을 밝혔다. 9라운드 전주고 내야수 엄준현은 “야구하면 KIA, KIA하면 엄준현이 되도록 하겠다”며 프로 입단 각오를 이야기했다. 10라운드 유신고 우완 이성원은 “KIA하면 떠오르는 투수 이성원이 되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언급

했다. 11라운드 지명을 받아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광주일고 외야수 박현은 “광주의 자존심 광주일고의 박현이다. 가장 마지막에 뽑힌 만큼 가장 마지막에 은퇴하겠다”는 각오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KIA는 11명의 선수와 입단 계약도 마무리했다. 1라운드에서 지명한 김태형과 계약금 3억원에 계약할 한 KIA는 2라운드 이호민과는 계약금 1억 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 박재현(1억원), 양수호(8000만원), 김정엽(7000만원), 최건희(6000만원), 나연우(5000만원), 임다은(4000만원), 엄준현(4000만원), 이성원(3000만원), 박현(3000만원) 등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은 3000만원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윤영철, 부상 훌훌~ “KS 선발 경쟁 기대해”

KIA-삼성전으로 복귀...37개 공으로 3이닝 깔꿈투

부상을 ‘전화위복’ 삼은 KIA 타이거즈 윤영철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척추 피로 골절로 쉬어갔던 윤영철이 지난 2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통해 다시 마운드에 등장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윤영철은 37개의 공으로 3이닝을 깔꿈하게 처리했다. 1회 1사에서 김현곤에게 내준 중전 안타가 이날 유일한 피안타, 바로 병살타로 주자를 정리했다. 윤영철 이날 최고 구속은 140km, 평균 138km. 윤영철은 슬라이더(8개·124-127km), 커터(7개·130-132km), 체인지업(6개·12-128km), 커브(2개·116-119km)도 구사했다. 특유의 정교함을 바탕으로 기대 이상의 피칭을 선보인 윤영철은 한국시리즈 엔트리 합류 가능성을 키웠다. 지난해 총마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자마자 선발 한 자리를 차지했던 2년 차 윤영철은 올 시즌 부상으로 2달 여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 시간을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마음과 몸을 키우고, 상대와의 승부를 위한 전략을 더한 시간이었다는 게 윤영철의 설명이다. ‘강심장’으로 통하는 윤영철이지만 시즌 초반 부진으로 마운드에서 마음고생도 했다. 윤영철은 “초반에 어떻게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마운드에서 안 던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래도 오래 쉬니까 공을 너무 던지고 싶었다.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가 좋다고, 못 던져도 던질 때가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야구를 다시 생각한 윤영철은 몸의 힘을 키웠다. 윤영철은 “개치볼 처음 시작할 때도 불안감이 있었다.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등 쪽이 당기는 것은 코어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두 달 동안 매일 코어 운동을 했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고 힘쓰는 것도 더 좋아진 것 같다. 언젠가는 터질 것 빨리 터진 것 같다”고 차라리 잘 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은 놓고 있었지만 야구 생각은 잊지 않았다.

머리로 타자들과의 승부를 그리면서 전략도 강화했다. 윤영철은 “재활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있다. 내가 던지는 공 위치보다 타자의 눈을 많이 속이려고 한다. 피치 타널이라고 많이 하는데 형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다. 자기만의 코스를 가지고 오는 타자가 많으니까 그 코스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공을 여러 가지 쓰면서 타자의 눈을 많이 속이려고 했다”며 “그게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맞는 것에서도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있다. 맞아보니까 상대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성공적으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윤영철은 다시 윤영철답게 다음 무대를 준비할 생각이다. 윤영철은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마운드에서도 긴장 안 했다. (팀이) 우승도 했고, 점점차 나온 것이라 긴장할 이유가 없었다.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재미있었다. 만원 관중 앞에서 재미있었다”며 “한국시리즈라는 목표를 위해 끝까지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30일 홈에서 정규시즌 피날레

챔필서 NC와 최종전...포스트시즌, 다음달 2일 시작

KIA 타이거즈가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한다. KBO가 24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정규 시즌 2차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1차 잔여 경기 일정에서 우천 취소된 후 편성되지 않았던 4경기를 대상으로 10월 1일까지 새로 일정이 편성됐다. 지난 21일에 이어 예비일이었던 22일에도 치러지지 못했던 KIA와 NC 다이노스의 광주경기가 30일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KIA의 시즌 최종전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24일 삼성에 이어 25일 롯데 자이언츠와 홈에서 경기를 갖는 KIA는 27일 대전으로 가 한화와의 상대한 뒤 28일 롯데 원정을 통해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KBO 최종전 일정도 28일에서 10월 1일로 미뤄졌다. 10월 첫날 롯데-NC가 창원NC파크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NC의 ‘가을잔치’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롯데도 순위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바로 10월 2일 포스트 시즌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오타니, 못하는게 뭐니?

MLB 개인 10번째 주간 MVP...7경기 6홈런·7도루·17타점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쓴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가 개인 통산 10번째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주간 최우수 선수상(MVP)을 받았다. MLB 사무국은 23일(현지시간) 오타니를 9월 세 번째 주 내셔널리그 MVP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전의 여지가 없는 결과다. 오타니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7경기에서 타율 0.500(32타수 16안타), 6홈런, 7도루, 17타점의 성적을 올렸다. 19일에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선 6타수 6안타(3홈런) 10타점 4득점 2도루의 경이로운 성적을 쓰며 MLB 최초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세웠다. 오타니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23일 현재 타율 0.301, 53홈런, 123타점, 55도루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남은 6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더 치면 55홈런-55도루 기록까지 세울 수 있다. 오타니가 MLB 주간 MVP에 오른 건 이번이



10번째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시절 7차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다저스로 이적한 올해에 3번째 주간 MVP로 선정됐다. 아메리칸리그 주간 MVP는 6경기에서 타율 0.433, 3홈런, 9타점을 올린 시애틀 매리너스의 외야수 윌리 로드리게스가 받았다. /연합뉴스